절에서 만나는 '신기한 과학세상'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복지재단 '참좋은어린이집' 과학축제 개최

'비밀의 방'에서 물속에서도 타는 불에 눈을 떼지 못하는 어린이(왼쪽), 화려한 제2관문의 모습. <사진제공=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왕후의 자리를 내놓으시지요!"

TV 속 광고 얘기가 아니다.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복지재단 부설 참좋은어린이집이 11월 17일 마련한 축제에서 선보인 관문의 이름이다.

참좋은어린이집이 개최한 축제의 주제는 바로 '과학'. 어렵고 생소한 과학을 유아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참좋은어린이집은 '과학축제'에서 그 비법을 공개했다.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과학, 지구의 비밀, 우주과학까지 다양한 과학의 세계가 어린이집에 펼쳐졌다.

그 축제의 현장을 따라가 보자.

제1관문은 '비밀의 방'. 이곳에 들어선 어린이들은 '고기 낚는 어부'가 되거나 '수영하는 건포도'를 만날 수 있다. 코너마다 실험순서와 실험 속 과학 원리를 설명해놓았지만 어린이들에게 설명은 뒷전. 바로 실험에 도전한다. 물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신기한 불 앞에서는 눈을 떼지 못한다.

'왕후의 자리를 내놓으시지요!' 제2관문은 제목부터 화려하다. 왕후의 자리를 넘겨받기 위해 어린이들은 형형색색 비누와 예쁜 양초 만들기에 도전한다. 천연 스킨과 치약도 어린이들 손에서 뚝딱.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따끈따끈 손난로도 척척 만들어낸다.

'분홍돼지의 토이스토리'로 꾸며진 제3관문에선 야쿠르트병을 이용한 열쇠고리를, 제4관문 '장금이의 꿈'에서는 폭신폭신 달콤한 머시멜로우가 듬뿍 든 초코파이도 직접 구워냈다. 톡톡 터지는 팝콘은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만들기 바쁘게 입안으로 쏘옥 들어간다. 부모들에게 추억의 먹을거리인 달고나와 뽑기, 톡톡 쏘는 레몬사이다 만들기도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신비한 우주의 세계가 펼쳐진 제5관문 '오즈의 나라'에서 최고 인기는 '나는야 우주인'. 어린이들은 은빛 우주복을 입고 우주인으로 변신했다. 제6관문 '별들에게 물어봐'는 별자리탐험 동영상으로 신비한 별들의 세계로 떠났다. 줄타기 삐에로와 곤충의 눈 체험이 기다리는 제1복도와 먹이사슬 토네이도 천둥 등 자연현상을 접할 수 있는 제2복도가 마지막 관문이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어린이들은 즉석 솜사탕을 비롯해 푸짐한 선물도 받았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축제는 마감 예정 시간인 오후 3시를 훌쩍 넘기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됐다. 실험 한 번으로 충족할 수 없었던 어린이들이 두 번, 세 번 재실험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한편 참좋은유치원은 11월 15일부터 만4세반(2003년 3월 1일~2004년 2월 28일 출생), 만5세반(2002년 3월 1일~2003년 2월 28일 출생 및 취학예정자)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입학상담을 하고 있다. (053)476-6767

강지연 기자

"인재불사의 요람 만들 것"

부산불교신도회관불사추진 이욱태 본부장

"부산불교신도회관을 인재불사의 요람이자 대중불교의 원동력이 되는 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11월 28일 부산불교신도회관이 개관됐다. 부산불교신도회관불사추진본부 이욱태 본부장(부산 해동중 교법사·사진)은 "부산불교신도회관은 부산불교신도회 출범 40년 만에 오직 재가불자들의 서원만으로 추진한 불사"라며 "연면적 2700㎡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총 70억의 재원을 들여 건립한 부산불교신도회관은 재가자들의 힘을 모아 도심 한복판에 이룬 한국불교 최초의 불사"라고 설명했다.

부산불교신도회관은 5층 교육관 진여원, 6층 법당 법계정사, 7층 소법당 불지원으로 구성돼있다.

"법계는 우주만법 중생들이 사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세계를 맑고 청정하게 하는 중심도량으로 가꾸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진여원은 우리의 본성, 불성을 깨닫고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자세입니다. 불지원은 부처님의 세계를 증득한다는 뜻입니다. 부산불교신도회는 이 뜻에 어긋남 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이욱태 본부장은 앞으로 부산불교신도회관을 터전으로 일반청년 및 대학생 지도자 육성, 각 사찰의 종무원 보수 특화교육, 부산불교전문강원 운영 등 대중불교운동에 앞장설 계획이다. 세부계획도 잡혔다. 일반 청년 및 대학생 지도자 육성은 대불청 부산지구, 청년불자 산악회와 연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종무원 보수 특화교육은 컴퓨터 교육, 조직운영기법 교육을 주로 한다.

부산불교전문강원은 은해사 승가대학 원장 지안 스님을 원장으로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 쌍계사 강주 통광 스님, 범어사 강주 무비 스님 등이 강사로 포진했다. 총 9년 과정으로 불전반 3년, 논전반 3년, 사상반 3년으로 나뉜다. 스님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재가불자는 포교사나 신도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제한한다.

"이번 불사는 부산불교의 오랜 염원이며 결집"이라는 이욱태 본부장은 "새벽 6시에 모여 회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실무자들과 (재)불심홍법원 하도명화 前 이사장, 류진수 회장님, 공병수 회장님, 그리고 힘을 모아준 모든 분들이 이 불사의 기둥"이라고 불사를 완공한 기쁨을 도반들의 공로로 돌렸다.

하성미 기자

행복한 '지각 결혼식'

부산진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 저소득층 무료 결혼식 지원

부산 부암동 김극수(44)·백영미(38) 부부에게 11월 16일은 특별한 날이다. 그동안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못 올린 결혼식을 부산진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회장 정여)의 도움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부산진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는 11월 16일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 4층 교육관에서 부산진구 관내 저소득층 무료결혼식을 거행했다.

주례로 그들의 삶을 축복한 정여 스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으로 만나 이룬 가정을 잘 가꾸어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부부를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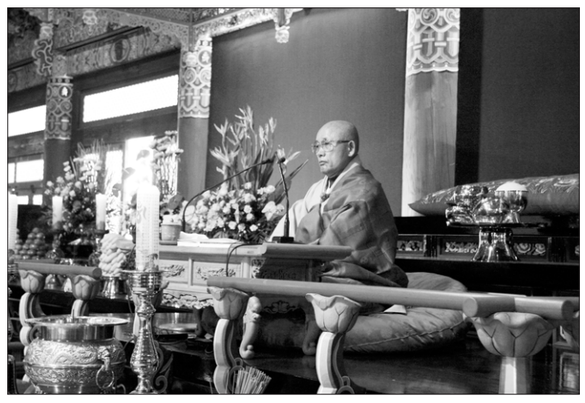
신랑 김극수씨는 "그동안 아내에게 항상 미안했는데 결혼식으로 우리 부부는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내 울음을 터뜨린 신부 백영미씨는 "그동안 쌓인 가슴속 응어리가 풀려 나간 자리"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결혼식은 부산진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 가족들의 십시일반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한복은 금실한복 박인숙씨가, 드레스는 복지관 김덕춘 총무가 각각 후원했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입재식

30일→53일로 연장…내년 1월 7일 지관 스님 법문으로 회향



대중들에게 깨침의 도리를 설하는 통도사 전계사 혜남 스님.

차가운 초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통도사 설법전은 구법 열기로 뜨거웠다. 1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가 화엄산림대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 11월 16일 열린 법회는 매년 한 달 동안 진행됐던 화엄산림법회를 53일로 기간을 연장해 그 의미가 깊다. 2008년 1월 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법문으로 화엄산림대법회를 회향한다.

통도사화엄산림대법회는 30여 년 전인 1975년 동짓달 초하루에 시작됐다. 당시 극락암에 주석했던 경봉 스님은 "사람의 얼굴에 일곱 개의 구멍이 있다. 눈 두 개, 귀 두 개, 콧구멍 두 개, 그리고 입 하나이다. 이게 바로 <대방광불화엄경>이다. 이 이치를 바로 알면 <화엄경>의 참뜻을 아는 것"이라고 설법했다. 통도사 창건주 자장 율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화엄경>을 설한 스님이다. 통도사의 이름도 <화엄경>의 뜻인 '통만법귀일심(通萬法歸一心)'을 나타내는 말이다.

입재식에서 주지 정우 스님은 "어린 선재동자를 구법의 길로 보낸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덕목을 나누고 싶었다"며 "화엄산림 대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설법전에 모신 영가는 49일 동안 화엄법문을 듣는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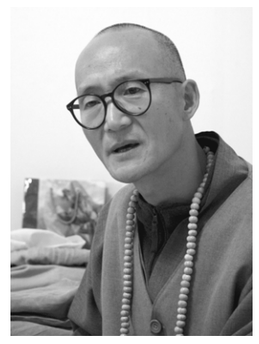
통도사 전계사 혜남 스님은 "한 마음 깨닫고 나면 깨침이란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다. 깨닫고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부처님이요, 들리는 소리도 다 좋은 소리이다. 그러니 보고 듣고 말하고 목마른 것을 아는 것이 <대방광불화엄경>이다. 1, 2, 3, 4, 5, 6, 7이 <대방광불화엄경>이다"고 설법했다.

화엄산림대법회 기간 동안 석가여래와 자장 율사의 금란가사 친견 자리도 마련된다. 그동안 금란가사는 통도사 박물관에서 보관했으며 일 년에 한번 개산대재 행사 중에 공개됐다. (055)382-7182

하성미 기자

청정 '보리심' 중요성 강조

관음사 천일기도 2주년 법회에서 청전 스님 법문



"허공계가 다하고 단 한 명의 중생이 남을 때까지 저는 이 세상에 머물면서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을지어다."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 제10장 회향품 55절이다. 부산 관음사(주지 지현)에서 만난 청전 스님(사진)은 보리심에 관해 설법하며 "달라이 라마께서 노벨평화상을 받고 이 기도문을 하셨다"고 강조했다. 11월 19일 관음사 천일기도 2주년 및 동안거 백일기도 입재기념 법회 자리에서다.

"보림의 뿌리는 현상계의 인과응보가 아닌 내생에 사라지지 않을 뿌리가 된다"고 지적한 청전 스님은 "보리심의 전제 조건은 청정하게 사는 것이며 보리심을 발원하고 남의 행복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꾸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전 스님은 티베트에서 기본으로 수업하는 <입보리행론>을 설명하며 보리심을 재차 강조했다. 인도의 불교학자 샨티데바가 쓴 산스크리트 원전 <입보리행론>은 시로 쓰여 후기 대승불교문학의 걸작으로 꼽힌다.

스님은 "<입보리행론>은 '보살행의 실천에 들어가는 길'이란 뜻으로 육바라밀을 기본으로 한다"고 중요성을 설명했다.

6명의 티베트스님과 한국을 순례 중인 청전 스님은 "문명으로 가득 찬 한국이 자살률, 낙태율이 1등인 것을 생각하면 씁쓸하다"며 "문명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기에 조금 춥고 배고픔 속에서 너무 안 넘치도록 지혜롭게 수행하여 동안거를 맞으시길 바란다"고 한국불자들에게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초의차문화연구원 충북지부 가침다도회

제1기 졸업생 8명 배출

초의차문화연구원 충북지부 가침다도회가 제1기 졸업생 8명을 배출했다. 11월 15일 청주 화장사(주지 무진)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초의차문화연구원 여연 스님(일지암 주지), 광주문화원 성화자씨 등 100명이 참석했다.

가침다도회는 지난해 9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화장사에서 다신전강의, 다도예법, 행다법 등을 공부해왔다.

여연 스님은 "다도의 첫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고 가침다도회가 초의차문화연구원 충북지부의 주춧돌이 됐다"고 격려했다.

초의차문화연구원은 1993년 4월, 해남 일지암 주지 여연 스님에 의해 창립됐다. 다성(茶聖) 초의 스님이 40년간 주석하셨던 일지암에 총본부를 둔 초의차문화연구원은 서울, 광주, 대전지부에 이어 청주 화장사에 충북지부를 두고 있다. (043)255-5758

혜철 충청지사장

반야심경 독경대회

청주교도소서 개최

괘불 앞에서 독경삼매에 빠져든 재소자.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지사장 혜철)가 제2회 청주교도소 <반야심경> 독경대회를 11월 20일 개최했다.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독경대회에서는 앞서 치러진 예선 통과 8개 팀이 참가해 독경솜씨를 뽐냈다.

자세, 음률, 이해 등 30점 만점을 기준으로 박시하 청주불교방송총괄국장, 혜전 스님(석문사 주지), 충청지역 신문사 문화부 기자 등이 엄중한 심사를 했다.

이날 독경대회에서는 불보상에 조 모씨, 법보상에 최 모씨, 승보상에 주 모씨가 수상했다.

혜철 스님은 "염불은 대중들이 함께 동음창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음을 담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법문했다. 수상자에게 부상으로 라면과 석문사 신도회에서 떡을 보시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청주불교방송 명사초청 강연

청주불교방송이 11월 26일~12월 7일 '명사초청강연회-네 꿈을 펼쳐라' 특집 방송을 한다. 청주고, 금천고, 충주여고, 제천고, 오창고 등 충북도내 5개 고교에서 진행될 방송강연회에는 충북대 임동철 총장, 충주대 안병우 총장, 현대백화점 경청호 사장, 서경대 서길수 교수, 산악인 허용호씨 등이 강사로 나선다.

청주불교방송은 "대입수능을 마친 고3학생을 비롯해 자신의 인생관 정립을 위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마음으로 방송강연회를 기획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043)211-2090

혜철 충청지사장

대구 제현사 시비제막식 봉행

종교초월한 28기 詩 새겨

대구 제현사(주지 법륭)가 11월 21일 준공법회와 더불어 시비제막식을 봉행했다.

제현사가 여느 사찰과 달리 특별한 것은 종교를 초월한 각종 시들을 새겨넣은 28기의 시비동산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도동측백수림과 마주한 도동시비동산에는 공자 정몽주 신사임당 이순신 등 역사 속 인물에서부터 한용운 조지훈 박목월 고은 해월 스님 등의 시를 새긴 28기의 시비가 건립됐다.

법륭 스님은 "충효사상을 투철하게 지켜온 분들의 마음을 관조한 옥고를 시비로 모시게 된 것은 한국문인협회 회원들의 큰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이라며 "태국 다마몽콜 프라야차나 주지스님으로부터 기증받은 부처님 진신사리 세과를 봉안한 다보탑 성지인 제현사와 함께 시비가 건립된 것은 우주만물의 이치"라고 법문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현대불교 후원 : (국민)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